



기초음악 이론 및 음악에 대한 이해 ④

기초음악 이론 - 화성의 이해

+ 홍세린 삼아프로사운드 대리

- ① 음원의 BPM 찾기 및 BPM에 따른 음악 편집 Tip
- ② Pop(Motown)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듬의 이해
- ③ 기초음악 이론 - 조성 및 음계
- ④ 기초음악 이론 - 화성의 이해
- ⑤ 기초음악 이론으로 들어보는 Pop 음악

방송과기술 [Back to Basic Season II] 코너는 방송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 신입사원이나, 업무 전환된 방송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방송음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악의 이론적 이해를 돕고자 [기초음악 이론 및 음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음악이라는 장르를 지면을 통해 100%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음향믹싱 및 PA 실무자 분들에게 음악적 이론 습득과 더불어 제작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새롭게 음악의 기본을 복습해 본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 편집장 주

"조금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 글을 도와준
두인보(타악기 연주자 및 프로듀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약 3개월에 걸쳐서 우리는 방송과기술 Back to Basic Season II를 통해 음악의 기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음악의 기초인 빠르기부터 음표, 박자표, BPM, 리듬패턴, 조성, 조표, 그리고 음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분량이 굉장히 많았으나 차근차근 계속해서 읽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물로 본인들의 머릿속에 남을 것이라 바라본다.

4번째 시간인 이번 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화성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양하여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서 파헤쳐 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패턴들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물론 현대음악이나 재즈음악에서 나오는 화성들은 쓰임새가 다 다르고 복잡하지만 화성의 기초에 도전해 보고 그 기초들 토대로 하나씩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화성(Harmony)

화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막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방송과기술 독자들 중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던 장음계(Major scale)와 단음계(Minor scale)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번에 이야기 할 기초 화성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방송과기술 11월호를 건너뛴 독자, 혹은 온음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덜 되었다면 11월호를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본 후 설명될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한다.

(1) 음정(Interval)

음정이라고 하면 Note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설명할 내용은 Interval, 즉 음들의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음정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온음과 반음으로 나뉘는데, 앞서 배웠던 온음계와 반음계를 생각해 보면 그 이해가 쉬울 듯 하다. 쉽게 설명하면 반음 + 반음 = 온음이다. 피아노에서 도의 위치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자. 도에서 도#의 거리는 반음이며 도에서 레 음정까지의 간격은 온음이다. 우선, 이렇게만 기억해 두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쉬울 것이다.

지금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많은 이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였을 음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기초 음악이론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기엔 이해가 가지 않는 독자들은 가능하다면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기를 추천한다.

음정에 앞서 잠시 지난 시간에 이야기 한 온음계 중 장음계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자.

· 장음계 : 장음계는 으뜸음에서 한 옥타브 위 다음 으뜸음까지 3번째 4번째 사이, 그리고 7번째와 8번째 사이가 반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음계(Major scale)



음계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 할 음정(Interval)을 이해하기엔 앞서 한 옥타브에서 구할 수 있는 반음의 수와 온음의 수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독자들 중 모르는 사람을 위한 것이니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자.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이듯 도에서 한 옥타브 도까지 온음의 수는 총 5개이고 반음의 수는 총 2개이다. 온음은 무시하고 반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그림에서 보이는 3번째와 4번째 음정, 7번째와 8번째 음정, 즉 미와 파, 시와 도의 간격이 반음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아노 건반을 상상해 보면 각 온음정들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있는데 미와 파 음정 사이와 시와 도 음정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어 이를 반음으로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그림에서 보는 다장조(C Major) 음계 뿐만 아니라, 모든 조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구조이니 이 점을 꼭 기억해 놓기를 당부한다.

- 완전 음정(Perfect Interval)

완전 음정은 두 개의 음정이 똑같은 타이밍에 연주되었을 때 똑같은 울림을 내거나 그 두 개의 울림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렸을 때를 말하는 음의 간격을 이야기 한다. 완전 음정은 근음을 기준으로 4도, 5도, 그리고 8도의 음정이고, 이 음정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완전 1도, 완전 4도, 완전 5도, 그리고 완전 8도(옥타브, Octave) 이다.



완전 1도는 같은 두 개의 음의 간격을 이야기하며, 완전 4도는 2개의 온음과 1개의 반음, 그리고 완전 5도는 3개의 온음과 1개의 반음을 포함하고 있는 Interval을 이야기 한다. 완전 8도(옥타브)는 다들 잘 알다시피 근음과 한 옥타브 위의 Interval을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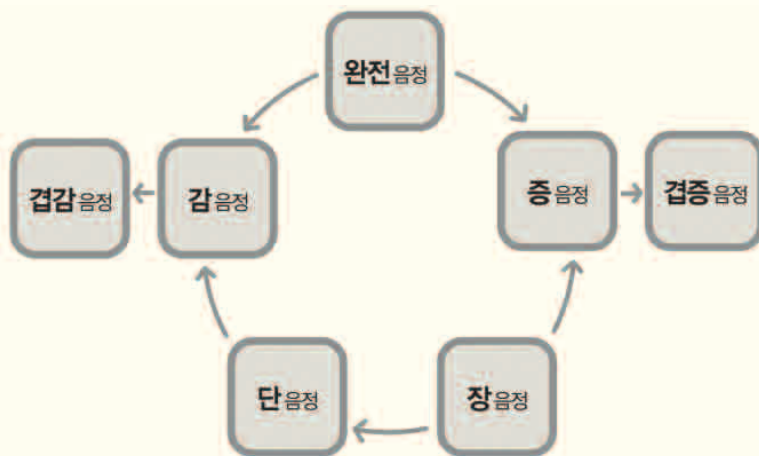
※ 근음(Root position 혹은 Fundamental note)이라 불리는 음은 기본적으로 화음의 코드를 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며, 해당 코드 이름이 된다.

- 장음정(Major)

장음정은 한 옥타브의 음계(Scale)에서 이야기 할 때 완전 음정을 제외한 나머지 Interval들을 이야기 한다. 그 안에는 장, 단, 감, 증, 겹감, 겹증이 있고 이 것들은 두 개의 음정 간격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붙여지는 이름이다. 한 옥타브 음계에서 구할 수 있는 장음정은 총 4개이며 장 2도, 장 3도, 장 6도, 그리고 장 7도가 있다.



장 2도의 음정 간격은 하나의 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장 3도는 2개의 온음, 장 6도는 4개의 온음과 1개의 반음, 그리고 장 7도는 5개의 온음과 1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음정의 먹이사슬 같은 것이다. 완전음정에서 음의 간격이 좁아지면 감음정으로, 음의 간격이 늘어나면 증음정으로 올라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장음정에서 음의 간격이 좁아지면 단음정으로, 음의 간격이 늘어나면 증음정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와 같은 음정(Interval)에 대한 이해는 꼭 외우거나 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 불리며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길 바란다.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위의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하지 않을 예정이니 안심하길 바란다. 위의 음정 간격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어서 나올 화음에 대한 설명을 보기 전에 그 구조를 이해하고자 함이니, 이해가 안되었다면 천천히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다음 주제인 화음(Chord)에 대해서 알아보길 권한다.

(2) 화음(Ch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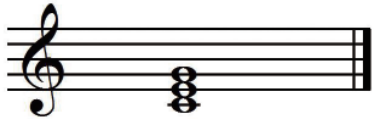
화음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내어 합성된 소리를 뜻한다. 서로 다른 음정들로 이루어진 화음은 구성에 따라 협화음 혹은 불협화음으로 분리할 수 있다. 화음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3화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 3화음(Triad)

기본적으로 3화음은 장, 단, 증, 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3화음은 3개의 음정으로 이루어진 화음을 뜻하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코드(Chord)의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3화음이다. 또한, 이 3화음은 구성에 따라서 장 화음, 단 화음, 증 화음, 감 화음으로 나뉘는데 먼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숨어 있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장 화음(Major Chord)

앞으로 방송과기술 독자들은 장 화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4 + 3 이라는 공식을 꼭 기억해 보도록 하자. 장 화음은 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 중 하나이며, 흔히 Major 코드라고 불린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알고 있는 도, 미, 솔로 이루어져 있는 화음인 C major 코드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4 + 3을 해석해 보자면 제일 밑에 있는 근음인 도 음정부터 두번째 음정인 미 음정까지 반음의 수가 총 4개이다. 이때, 근음 음정 도는 카운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 음정부터 제일 마지막 음정인 솔까지 반음의 수가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장 화음, 즉 Major 코드의 구조이다.

- 단 화음(Minor Chord)

단 화음의 공식은 3 + 4 이다. 단 화음, 즉 Minor 코드라 불리는 이 화음은 앞서 언급된 Major 코드와 함께 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음이다. 단 화음은 장 화음을 그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된다.



그림에서 나오는 음정구조를 분석하여 보자. 도에서 미b 까지의 반음 수는 3개이며, 미b에서부터 솔 음정까지의 반음 수는 4이다. 이와 같은 음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음이 바로 단 화음, 즉 Minor 코드의 구조이다.

- 증 화음(Augmented)

증 화음이라는 이름과 영어 이름인 Augmented는 조금 생소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음인 만큼 증 화음의 구조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

그림에서 나오는 음정구조를 분석하여 보자. 도에서 미 음정까지의 반음 수는 4개, 그리고 미에서 솔#까지의 반음 수는 모두 4개이다. 따라서 증 화음의 공식은 4 + 4라고 외우면 되고, 이 화음이 악보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Aug 화음 즉 Augmented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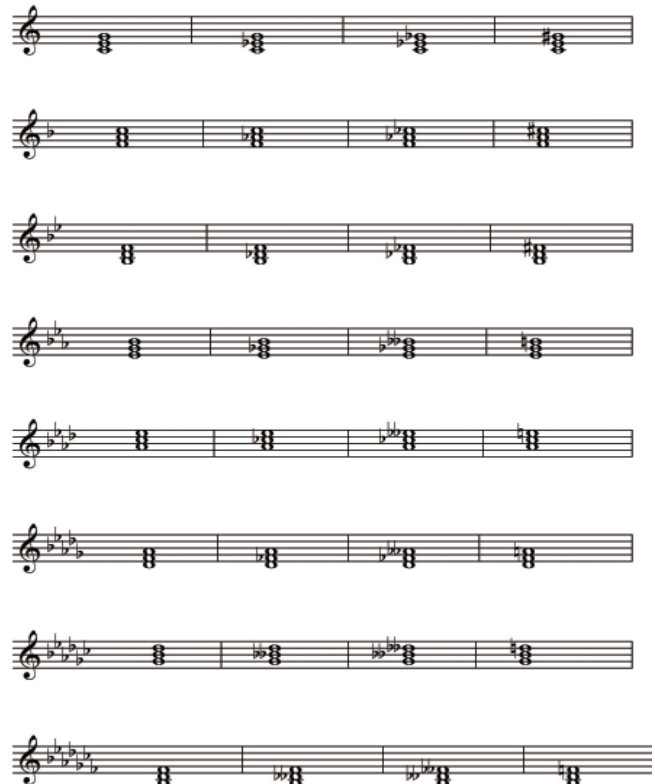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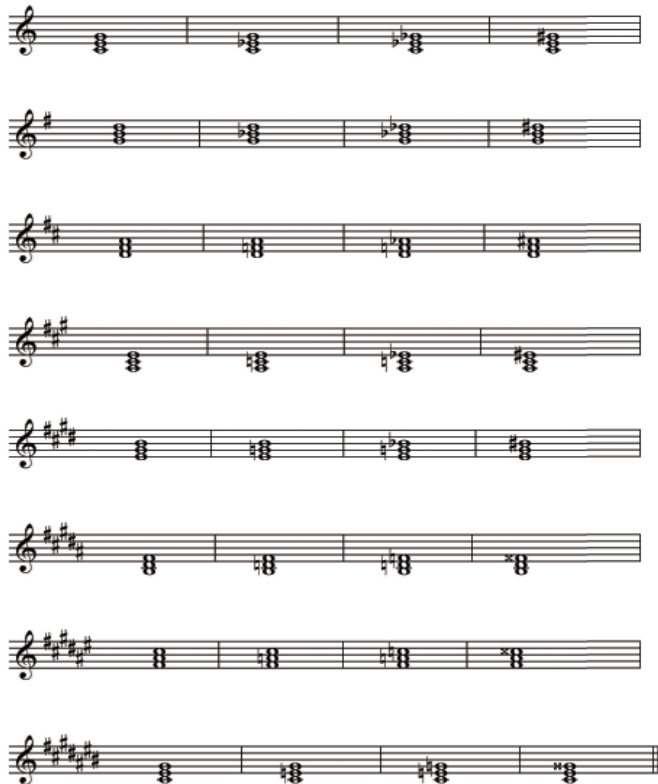


- 감 화음(Diminished)

마지막으로 감 화음. 감 화음이라는 이름 보다 디미니쉬 코드라고 많이 불리는 이 화음의 공식은 3 + 3이다.



그림에서 나오는 음정 구조를 분석해 보면, 도에서 미b까지는 3개의 반음 그리고 미b에서 파#까지의 총 반음 수는 3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감 화음의 구조이고 악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Dim 혹은 diminished 코드이다.



(3) 전위 (Inversion)

전위는 화음의 위치를 위아래로 변환하여 식상한 코드 진행의 변환을 꾀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다른 이름으로 자리바꿈이라고도 불리며 Inversion이란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전위에는 음정 전위, 화음 전위, 선율 전위로 나뉘어져 있다



음정 전위 - 음정 전위는 두 개의 위 아래 음정의 위치를 바꾸는 자리바꿈을 이야기 한다. 예를 들면, 도 음정(근음)과 솔 음정이 있다고 하면 근음인 도 음정을 한 옥타브 위로 올리어 솔 음정을 근음으로 바꾸고 도 음정을 두 번째 음정으로 위치시켜 그 성질과 음정의 간격을 달리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화음 전위 - 화음 전위는 세 개의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음의 구조를 바꾸어 각각의 음의 간격을 변환시키는 방법이다.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도, 미, 솔 (C Major) 코드에서의 근음인 도 음정을 옥타브로 올려 미, 솔, 도의 구조로 변환시킨다. 이것을 1전위라 하며 여기서 제일 낮은 음인 미 음정을 제일 위로 올려 솔, 도, 미 음정으로 변환시켜 화음의 변화를 꾀하는 것을 제 2전위라 이야기 한다. 실질적으로 기본, 1전위, 그리고 2전위를 차례대로 연주해 보면 조금씩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 식상할 수 있는 코드 진행에 색다른 변화를 첨가할 수 있다.

화음 전위의 느낌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코드를 기반으로 한번씩 눌러보고 소리를 익혀 그 변화에 대한 느낌들을 알아보면 좋을 듯하다. 1전위와 2전위의 다른 느낌, 2전위와 원래 코드의 다른 느낌을 알아 놓으면 본인이 직접 연주할 때 패턴을 하나씩 바꿔서 응용하기를 추천한다.

선율 전위 - 선율 전위는 상행 혹은 하행, 또는 일정한 패턴으로 연주되는 음악의 단순함을 피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선율 전위 자체를 전부 이론화하여 설명하기 불가능 하니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 듯 하다.

이번 시간에는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 음정(Interval)과 3화음만 잘 이해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양질의 지식을 쌓게 되는 것이니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혹은 잘 듣기 위해서 위와 같은 복잡한 구조의 이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과 상식으로 무장한다면 음악을 접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가 조금 더 professional 하게 변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니,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다.